■ 교육

내년도 대입 정원 크게 줄듯

갭이어 학생 때문

▲ 스탠포드대학교의 후버 타워. 사진=shutterstock

2021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8월 1일부터 원서 작성이 시작됐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금년에는 코로나로 SAT-ACT 시험 점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이 많다. 이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SAT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GPA, 즉 학교 성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AP-IB-A레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학업적 요소들이 더욱 더 중요한 상황이다.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액티비티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학년도 1학년에 입학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갭 이어, 즉 휴학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이 1년 뒤 등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입학 정원을 잠식하게 된다. 미국 교육관련 단체 통계로는 27% 정도가 갭 이어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미국 대학 입학 정원이 27%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2021학년도 지원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입학의 문이 대폭 좁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원 대학수를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전략은 지원 대학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자기 실력에 맞춰 지원 대학 범위를 좁혔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서 그 폭을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다. 지원 시기에 대한 전략이다. 미국 대학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 얼리(Early)와 레귤러(Regular)로 나뉜다. 얼리는 다시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과 얼리 액션(Early Action)으로 나뉜다.

아이비리그 어드미션 통계를 보면 얼리 디시전이 레귤러보다 합격률에서 일반적으로 3-5배 높다. 그러나 얼리 디시전은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반면 얼리 액션은 '등록 필수'라는 조건이 안 붙는다. 합격을 해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합격률은 얼리 디시전보다 낮다.

얼리 준비는 빨라야 한다. 11월 1일 혹은 15일이 마감일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 대학리스트를 정해서 얼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부동산 칼럼

일생에 한번 혜택 받을 수 있는 집의 재산세 (Propositions 60/90)

Propositions 60/90는 집 재산세 (Property Tax)에 관련된 사안이며, 기존에 살고 있었던집의 적은 재산세를 새로 이사 가는 새 집에 그대로 적용(tax relief)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 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는 아주 낮지만, 오른 시세에 팔고, 비슷한 다른 집을 구매하면, 구입한 집 가격에 맞춰서 집 세금 또한, 전의 집에 비해 폭등하는 현상을 염려해서 이사를 꺼리는 노년층들을 배려하는 사안이기도 하며, 살던 큰 집은 그 집이 필요한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넘겨주자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진=shutterstock

이 발의안 60/90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평생에 한번만 (One-time only benef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로 거주 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이어야 하며, 이사할 집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4. 구매 시기는 살던 집을 팔고 2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 또는 건축(완료 날짜)할 경우에 적용되며, 거주지역 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Form은 3년 안에 제출 해야 합니다.

5. 면제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Equal or lesser value).
*현재 사는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집을 사는 경우: 100% (판 가격) 또는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나서 1 년 안에 집을 사는 경우: 105% 또는 그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2번째 해에 집을 사는 경우: 110% 또는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Proposition 60는 California 내, 같은 County 에서 집을 팔고,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이며, Proposition 90는 California내, 다른 County (이 Program이 채택된 카운티)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입니다.

7. California Proposition 60 and 90, Property Tax Transfer to New Residenc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

ANGIE KIM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714) 707-036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Certified Short Sale and Foreclosures Specialist (#190418)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